

아산재단, 경북 영덕군 산불피해복구 지원



지난 3월 25일 밤 12시경 영덕아산병원 입원환자 58명이 강릉아산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됐다.

아산재단은 3월 31일 경북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영덕아산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아산재단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 주민들을 위한 복구 활동에 이번 성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영덕군까지 확산되었고, 3월 25일 저녁 9시경 산불이 영덕아산병원 인근 1.5킬로미터까지 근접하자 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을 2시간 거리의 강릉아산병원으로 긴급 이송하기도 했다. 의사 4명, 간호사 11명 등 총 19명의 영덕아산병원 의료진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및 중증 환자 58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했다.

서울아산병원 소식

美 뉴스위크 평가 '세계 25위 · 국내 1위'



서울아산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세계 병원 평가에서 세계 25위에 올랐다. 30개국 의료 전문가에게 받은 추천과 환자 만족도 등을 종합한 뉴스위크의 '2025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5)' 평가는 전 세계 2,400여 개 병원 중 우수 병원 250곳을 선발하는데, 서울아산병원은 국내 병원 중 유일하게 상위 20위대 병원에 포함됐다.

서울아산병원은 작년 하반기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 임상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도 내분비 분야 세계 3위를 비롯해 소화기 4위, 암·비뇨기 5위에 올랐다. 국내 순위로는 내분비, 소화기, 신경, 심장, 심장수술 5개 분야에서 1위로 선정됐다.

중입자치료기 계약 체결식



왼쪽부터 츠토무 다케우치 도시바ESS 부사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이창규 DK메디칼솔루션 회장이 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4월 7일 일본 도시바ESS-DK메디칼솔루션 컨소시엄과 중입자치료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2031년 가동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멀티이온빔을 사용할 수 있는 최신 성능의 중입자 치료 장비와 CT 영상 기반의 정밀 조준 치료가 가능한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난치성 암환자를 위한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이 가능해졌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캠퍼스에는 연면적 40,880㎡(약 12,388평)로 국내 최대 규모의 중입자 치료 시설이 건립된다. 회전형 치료기 2대, 고정형 치료기 1대를 도입하고 최첨단 치료 환경을 구축해 암환자들의 치료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